

슬로바키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I. 일반개황

면적	49천 km ²	G D P	750억 달러(2007년)
인구	5.39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13,911 달러(2007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Koruna(SK)
대외정책	친서방, NATO 및 EU 회원국	환율(달러당)	24.70(2007년 평균)

- 1993년 1월 체코와 분리, 독립한 슬로바키아는 중부유럽의 내륙국으로 총인구의 약 86%는 슬로바키아인, 약 10%는 헝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인당 GDP가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관련 제조업이 발달한 반면 에너지 및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 총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OECD, NATO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 EU에 가입하였음. 양호한 국제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유로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4.2	5.4	6.0	8.3	8.8
재정수지 / GDP	-3.9	-2.9	-3.0	-3.1	-2.2
소비자물가상승률	8.6	7.6	2.7	4.5	2.8

자료: IMF, EIU.

□ 2004년 이후 5% 이상의 경제성장세 지속

- 2004년 EU 가입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에는 내수와 대외무역 부분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2007년에는 주요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량이 두배 가량 성장하면서 수출 및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실질 GDP성장률이 8.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에도 자동차, 건설 부문 호조로 경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 3월, 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가 생산증가율 전망을 당초 18%에서 12%로 하향 조정 발표함에 따라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07년 재정수지 개선, 마스트리히트조건 충족

- 2006년 연금부문 개혁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로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2%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유로화 도입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건(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3%이내)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슬로바키아의 2009년 유로화 도입 목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EU 집행위는 동 성과가 정부지출 감축보다는 세수 증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출부문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음.

□ 20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 성공

- 2003~04년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기준년도 효과에 힘입어 2005년 물가상승률은 2.7%의 다소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였음.
* 정부의 연이은 에너지 관리가격 인상으로 촉발됨.
- 2006년에는 국제 유가가 상승에 따라 국내 생필품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전년대비 상승한 4.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시현하였음.
- 2007년에는 정부의 에너지가격 안정화 노력에 힘입어 가계 에너지 공급요금이 동결되었고, 또한 소매부문 경쟁 심화로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 정책

□ 자본주의 체제 전환 후 산업구조 재편 성공

- 산업구조가 EU 회원국의 일반적 형태에 근접하고 있어 자본주의 체제 전환 후 산업구조 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산업별 GDP대비 생산량 비중(2006년):
농림업 3.6%, 제조업(건설업포함) 31.6%, 서비스업 55.2%, 기타 9.6%

- 자동차 제조업이 GDP의 25%,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소니와 삼성의 신규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산업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관광수입 규모가 2001년 6억 달러에서 2006년 15억 달러로 대폭 신장되는 등 서비스업의 비중도 상승하고 있음.

□ 수출주도의 개방형 경제

- 2007년 기준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규모(1,160억달러)가 GDP 규모의 155%에 달하고 있는 등 경제의 개방성이 매우 큼.
- EU가 최대 교역시장으로 수출 85%, 수입 68%를 차지하고 있으면 단일국가로는 독일이 최대 교역국으로 2006년 수출 23%, 수입 21% 차지를 차지함(이상 2006년 기준).
- 대표 수출품목은 기계 및 운송장비로 총 수출액의 48.7%를 차지하고, 중간재(23.6%) 및 기타 공산품(9.4%, 이상 2006년 기준)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Exports					
(Sk m fob where series are indicated; otherwise % of total)					
	2002	2003	2004	2005	2006
Machinery & transport equipment	257,329	380,777	405,458	443,375	603,026
	39.5	47.4	45.5	44.6	48.7
Intermediate manufactured goods	174,531	190,349	221,931	247,909	291,924
	26.8	23.7	24.9	25.0	23.6
Miscellaneous manufactured products	92,905	104,634	99,615	103,704	115,937
	14.3	13.0	11.2	10.4	9.4
Chemicals	45,025	41,672	47,987	58,042	68,219
	6.9	5.2	5.4	5.8	5.5
Fuels & related products	39,483	41,626	57,659	72,039	80,524
	6.1	5.2	6.5	7.2	6.5
Raw materials	19,669	19,713	25,677	26,729	29,064
	3.0	2.5	2.9	2.7	2.3
Food & live animals	18,329	19,917	26,873	37,851	45,361
	2.8	2.5	3.0	3.8	3.7
Beverages & tobacco	2,772	2,960	2,773	1,838	2,426
	0.4	0.4	0.3	0.2	0.2
Animal & vegetable oils	965	1,147	1,802	1,570	1,607
	0.1	0.1	0.2	0.2	0.1
Total incl others	652,016	803,238	890,921	994,571	1,240,389

Source: SUSR, Foreign Trade of the Slovak Republic.

□ 2009년 유로화 도입을 위한 경제정책 시행

- 2004년 조세개혁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로 재정수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정부재정관리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는 등 정부예산 편성 및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2009년 유로화 도입이 모든 재정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기 재정수지 목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중임.
- 통화정책 역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바탕을 두고 있음. 2006년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를 위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75bp 인상하였으며, 이후 물가상승률이 안정되자 2007년 1사분기에는 50bp를 인하하였음. (* 현재 기준금리 수준: 4.25%)

□ EU 시장과의 통합 가속화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전망

- 최근 물가안정 및 건전한 경제성장세를 고려할 때 2009년 1월 유로화 도입이 실현가능한 목표로 평가되고 있음.
- * 2008년 4월 슬로바키아 정부의 유로화 도입 신청에 대하여 EU 집행위는 유럽 중앙은행(ECB)과의 협의를 거쳐 5월중 동국의 유로존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유로화 도입은 거시경제의 투명성 제고 및 EU시장과의 통합 가속화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관광산업 개발 노력

- 타트라스 산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로시설 및 관광 인프라 미비로 주변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관광수입 규모가 작았음.
- 2007년 Visegrad 4개국(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과 동유럽 관광시장의 국제적 홍보를 위한 협력체제(European Quarter-One Melody)를 구축하였는바, 향후 동 분야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됨.

□ EU 가입 이후 FDI 유입액 증가세 시현

- EU 가입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중 42억달러를 기록함. 아직 유치액면에서 Visegrad 4개국 중 3위 수준이나,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어 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FDI 유입액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대 슬로바키아 FDI의 최대 투자국은 네덜란드와 독일로 각각 19.5% 및 18.2%를 차지하고 있음. 투자 업종면에서는 총 FDI 유입액의 39.1%가 제조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전자제품에 집중됨(모든 수치는 2006년말 누계기준).

<표 2> 연도별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0~2000	2003	2004	2005	2006
Inward	634	2,160	3,031	2,107	4,165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12.0%	-	29.9%	17.1%	28.6%
Outward	-5	247	-21	157	368

3. 대외거래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1,973	-3,356	-4,302	-4,840	-4,031
경 상 수 지 / G D P	-5.9	-8.0	-9.0	-8.7	-5.4
상 품 수 지	-638	-1,537	-2,385	-2,542	-1,194
수 출	21,862	27,619	31,919	41,636	57,392
수 입	22,500	29,156	34,304	44,178	58,586
외 환 보 유 액	11,677	14,416	14,899	12,645	18,020
총 외 채 잔 액	18,172	22,211	23,654	27,085	37,394
총 외 채 잔 액 / G D P	54.7	52.6	49.4	48.5	49.9
D . S . R .	13.8	15.7	15.5	8.4	8.5

자료: IMF, EIU, World Bank, IIF.

□ 환율방어 정책에 따라 외환보유액 변동

- 1998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점진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었음. 그러나, 2006년 달러화 대비 코루나화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전년(149억 달러)대비 감소한 12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6년 6월 총선 실시로 인한 통화량 증가 및 향후 정책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함.

- 그러나 이후 환율이 반등하면서 2007년 1사분기중 전년도 외환보유액 감소분이 보전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말 외환보유액은 180억 달러로 추정됨.
- 반면, 외환보유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2002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 규모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07년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개선

- 2005년 폭스바겐이 생산모델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장을 정비하면서 자동차 생산량 및 수출량이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확대됨.
- 2006년에는 기아, 푸조 등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신규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건축자재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동 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 개시로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음.
- 2007년에는 자동차 부문 수출증가가 총 수출증가를 견인하여 수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전년대비 약 17% 감소한 4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잔액 증가세 지속

- 총외채잔액이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바 경제규모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3~05년간 GDP대비 외채잔액 비중은 40% 후반대에 머물고 있음.
-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외채잔액의 증가는 상업은행과 기업의 장기외채 도입에 주로 기인하며, 전반적인 외채규모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연정내 다수당의 영향력 우세

- 2006년 6월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중도좌파 대중정당인 스메르당(Smer-SD)이 다수당이 되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며, 당수인 Robert Fico가 총리에 취임하였음. 또한, 인민정당운동(LS-HZDS) 및 국민당(SNS)과 연합정권을 형성하여 의회 과반수(150석중 85석)를 획득함.
- 스메르당은 내각 15석 중 10석을 차지하여 연정내 지배정당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 정권에 비해 다소 개혁속도가 늦춰진 경향은 있지만 2009년 유로화 도입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개혁기조를 유지하면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7년말 농업부장관(LS-HZDS 계열)의 해임을 둘러싸고 연정 내 갈등이 나타났으나, 스메르당의 높은 대중 지지률을 바탕으로한 연정의 결속력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대외협력 강화 노력

- EU, NATO 및 UN 안보리 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협력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코·폴란드·헝가리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임. 또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실질적 최고 행정기관인 OHR에 참여하는 등 발칸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헝가리게 주민(10%)에 대한 차별대우 논란 등 헝가리와 다소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양국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함.

□ 최근 외교노선, 친미 성향 다소 퇴색

- NATO 관할 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병군은 유지하고 있지만, 2007년 2월 이라크 주둔군을 철수하였음. 또한 Fico 총리가 취임후 쿠바와 리비아를 공식 방문하는 등 구정권의 친미 기조의 외교노선이 다소 퇴색되고 있음.
- 2007년 초반 미국의 체코 및 폴란드내 미사일 방어기지 건립 제안에 대하여 러시아를 지지하여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슬로바키아가 NATO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임. 한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심화가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사회불안 요인 미미

- 다민족 국가로서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군소정당들이 다수 존재하나, 사회 안정을 저해할 정도의 사회불안 요인은 없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A등급 부여

- S&P: BBB+('04.3) → A-('04.12) → A('05.12)
- Moody's: A3('02.11) → A2('05.1) → A1('06.10)
- Fitch: BBB+('04.1) → A-('04.9) → A('05.10)
- OECD : 1등급(2007. 1) → 1등급(2008. 1)
- ICRG : 47/140(2007. 5) → 44/140(2008. 2)
- I. I : 39/174(2007. 3) → 40/174(2007. 9)
- Euromoney : 45/185(2007. 3) → 45/185(2007. 9)

* Moody's의 평가등급 상향조정 근거(2006. 10. 17.)

- 경제구조 개혁, 재정 통합, 높은 경제성장 전망 및 유로존 가입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 수행
- 생산성 향상과 공공부문 개혁, 조세체계 정비로 인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예상
- ERM II 체제에 부합하는 물가, 외환정책 견지 및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 긴축 재정정책 유지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상업은행 지급보증부 전액인수 가능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외채상환실적

□ 2006년 이후 D.S.R 대폭 개선

- 2004~05년 15%대를 유지하던 D.S.R이 2006년 8%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2007년에도 8.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세계은행 차입금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2006년 이후 원금상환액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동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다만, 최근 상업은행들의 단기 차입규모 증가가 향후 D.S.R. 수준의 주요 변수로 부각됨.

□ 리스케줄링 실적 없으며, 연체 실적 미미

- 리스케줄링 실적은 없음.
- 총 외채규모가 2007년말 374억 달러, GDP 대비 50%로 추정되어 다소 과중한 편이나, 국제신인도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양호한 외화차입 조건 등을 감안하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는 1993년 1월에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2007년 한-슬로바키아 교역규모는 27.8억 달러(전년 대비 78.9% 증가)로 대 슬로바키아 수출은 27.1억 달러(전년대비 113.6% 증가) 수입은 0.7억 달러(전년 대비 40.2% 증가)를 기록함.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 및 전자제품, 기계류 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화학제품임.
- 200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슬로바키아 해외투자 실적은 236건 7.4억달러(누계)로 기아자동차의 생산공장* 건립이 최대 프로젝트임.
 - * 2004년 이후 3년에 걸쳐 총 11억 유로 투자
 - * 연도별 투자액: 82천 달러(2004) → 224천 달러(2005) → 287천 달러(2006) → 133천(2007)

V. 종합의견

- 수출산업 위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경상성장에 따른 세수증대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음. 따라서 2009년 유로화 도입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됨.
- GDP 규모대비 외채규모가 다소 과중한 편이나, 대부분 상업은행 조달분이며 동국의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 및 지속적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감안할 때 외채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됨.
- 연정내 지배정당의 대중 지지가 높은 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정국 운영에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됨.

전문연구원 구윤정(☎02-3779-6665)
E-mail : kooyj@koreaexim.go.kr